

산양양조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랑의
수고
(Labour of Love)

박희찬
스튜디오 히치 대표

개요

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64
용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축면적	329.56m ²
연면적	329.56m ²
건축가	스튜디오 히치
프로젝트 팀	박희찬, 김영순, 박찬필, 신주현, 류진영, 안중환
구조엔지니어	하모니구조(곽규상, 류재룡)
기계·전기·통신 설비 엔지니어	유성기술단
전시설계 및 제작	스튜디오 히치
가구설계	스튜디오 히치
건축주	문경시청



다목적 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목재 폴딩도어



다목적 홀

‘산양 합동주조장’은 1944년 건립되어
문경지역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1988년 양조장이 폐업하면서부터 방치되어
복원 및 재구축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 건축 복원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와
축적된 시간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산양양조장 동측 입면



© 권도연



© 권도연



© 스튜디오 허치



© 스튜디오 허치

- 상 산양양조장 북측 입면과 외부공간
- 중 산양양조장 북측 입면
- 하 기존 목조 심벽을 유지한 채 증축된 기능실



© 김민호



© 스튜디오 레저

상 사무실
하 다목적 홀



상 다목적 홀에서 열린 지역 청년들의 이벤트 무대 '달빛 탐사대'
 하 베이커리 카페로 활용되는 다목적 홀

양조장의 술 숙성과 효모 배양을 위해 왕겨로 채워진, 두께 90cm의 보온 벽의 단면을 부분적으로 남겨두어 옛 양조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경험하게 했다. 또 한편에는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시공간을 기획했다. 옛 양조장의 사진, 드로잉, 양조를 위해 쓰였던 기구와 장치들을 모아 내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고, 리노베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건축 모형과 도면, 다이어그램 등을 전시용 가구와 함께 설치하였다.



© 스텝마의 건축

구조를 설명하는 건축모형 전시

1944년 ‘산양 합동주조장’으로 건립되어 문경지역 근현대사를 지켜봐 온 산양양조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건물 외벽에 노출된 얇고 정교한 일식 목구조가 특징인 산양양조장은 20년 넘게 술 제조·생산을 위한 기본적 기능과 특성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왔다. 프로젝트는 80여 년 세월을 건디어 온 목조 건물의 기계적 원형 복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양조장이 담고 있는 숨겨진 건축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구조체·외벽·내부공간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빙을 통한 섬세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복원 및 재구축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신들의 성리학적 이상향을 실천하기 위해 산과 물이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지어 경영하던 구곡원림(九曲園林)이 다수 위치한 금천(錦川)을 끼고 자리 잡은 문경의 작은 시골 마을 산양면 불암리. 1960년대 문경선 개통과 석탄산업 활황은 지역 인구를 크게 증가시켰고, 5일장과 함께 상업이 번창하면서 산양양조장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도로 교통 인프라의 변화와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서서히 산양양조장의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1988년에 폐업한 이후로는 방치되어 왔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부터 문경시에 의해 산양양조장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온전한 복원 vs. 완전히 새로운 공간

“근대건축을 복원해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활용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크게 훼손되어 건축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산양양조장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오기 위한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다. 기계적 복원을 통해 오히려 오랜 시간의 흔적이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 가는 근대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되지 않기 위해, 양조장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와 축적된 시간을 보여주는 것에 그쳐서는



상 리모델링 전 동측 입면(2018)
 중 리모델링 전 남측 입면(2018)
 하 기존 사무실 내부(2018)

* George Kafka. (2020). Opening statement: Yapi Kredi Culture Centre in Istanbul. *Architectural Review*.



상 산양양조장 동측 입면
하 산양양조장 동측 풀딩도어

안 되었다. 오늘을 사는 문경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양조장의 내외부를 기계적으로 원형 복원하기보다는 훼손된 현재의 상태에서 남겨질 부분과 복원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건축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부분을 고려한, 엄격한 리노베이션 전략이 수립되었다. 양조장이 가진 건축적 가치들을 드러내고 강화하여 방문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기획·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리노베이션 전략

남측과 동측 입면은 기존 일식 목조심벽 양식 원형을 토대로 복원되었고, 사무실과 기능실의 내부공간도 절제된 방식으로 보수하여 남겨졌다. 건축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기존의 어둡고 낮은 층고의 사



산양양조장 콘셉트 이미지

입실(술을 숙성시키는 공간)은 오픈된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북측과 남측 지붕 사이에서 구조하중을 담당하는 구조용 집성목(글루램, Gluelam) 콜로네이드(열주)와 기존 목재 트러스의 노출을 통해 높아진 층고를 가진 공간은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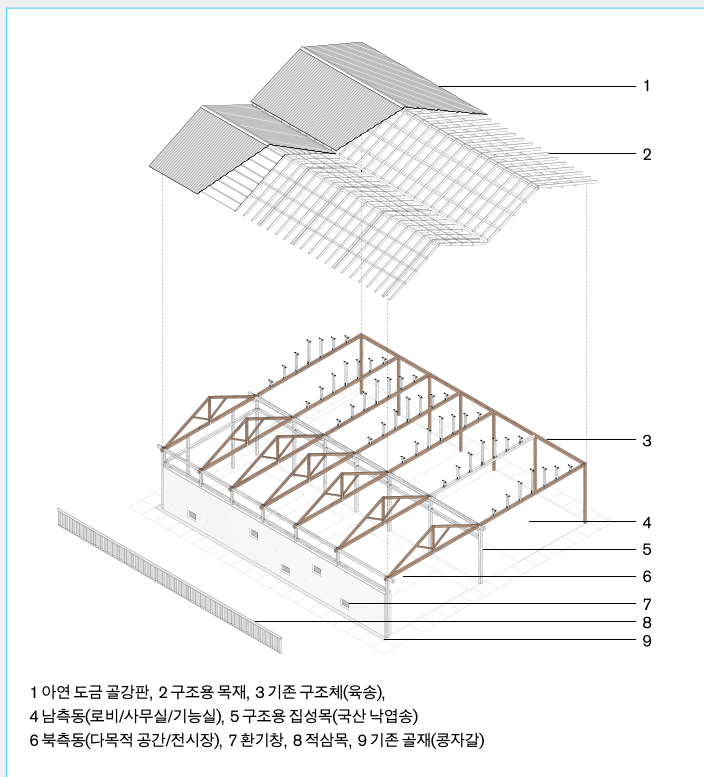
근대 목조건축 양식을 간직한 양조장의 남측 외벽은 기존 목조심벽 양식으로 복원되었다. 목조 트러스를 외부에 노출하고 있는 동측 입면은 복원되었고, 새로 계획된 목재 폴딩도어가 다목적실의 내부공간을 완전히 열어 외부공간과 연결하고 확장한다. 심각하게 훼손되고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던 북측 입면은 해체한 후 새롭게 세워졌다. 폐쇄되었던 술 제조를 위한 환기창을 부분적으로 복원하여 내부와 외부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였으며, 기존 벽체 철거 시 발생하였던 쇄석을 물에 씻어 외벽 미장 재료로 다시 사용하였다. 기

© 김민호



상 산양양조장 서측 기능실 입면
하 산양양조장 북측 입면과 외부공간

© 스튜디오 하치



건축 다이어그램



© 스튜디오 허치



© 리노베

- 상 다목적 홀
- 중 양조장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디스플레이
- 하 사무실

존 천장 마감과 동일한 높이에 새로 계획된 고층창(Clerestory)이 일정한 채광을 내부공간으로 유입한다. 오랜 세월 증축과 개축을 반복해 원형 파악이 불가능한 서측면의 여러 부속공간은 철거되어 주방과 기능실로 대체되었다.

지붕

노후된 기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새롭게 골강판으로 대체되었다. 왕대공과 평보가 쇠철물(감잡이쇠)로 결속되어 있는 북측의 기존 목재 트러스는 해체하여 인천의 공장으로 보내 보수과정을 거친 후 다시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다목적실 재구축 계획에 따라 노출된 지붕 트러스가 옛 양조장의 건축적 특성을 강화한다. 새롭게 고안된 구조용 집성목 콜로네이드가 남측 사무실·기능실을 다목적실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내부공간

양조장의 술 숙성과 효모 배양을 위해 왕겨로 채워진 두께 90cm의 보온 벽의 단면을 부분적으로 남겨두어 옛 양조 과정과 건축적 특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썩고 낡은 기존 목기둥의 하부를 잘라내고, 금속 철물을 통해 새로운 목재로 대체하여 옛것과 새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목창호와 천장 마감재 등이 보수과정을 통해 보존·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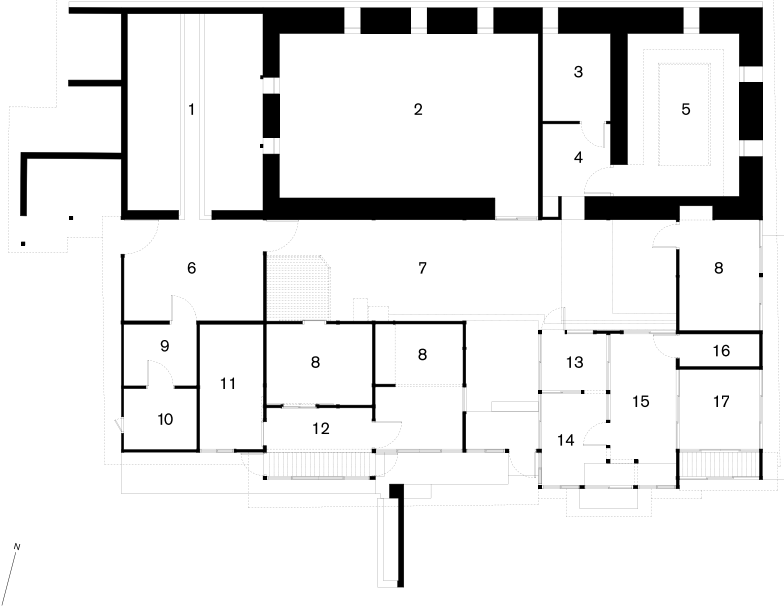
전시공간 및 가구

양조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시공간 기획은 건축가에게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옛 양조장의 사진과 드로잉 그리고 양조를 위해 쓰였던 기구와 장치들을 모아 내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고, 리노베이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건축 모형과 도면·다이어그램 등이 전시용 가구와 함께 설치되었다. 또한 베이커리 카페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용도의 내부 가구들도 건축가에 의해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설치되었다.

건축가의 '사랑의 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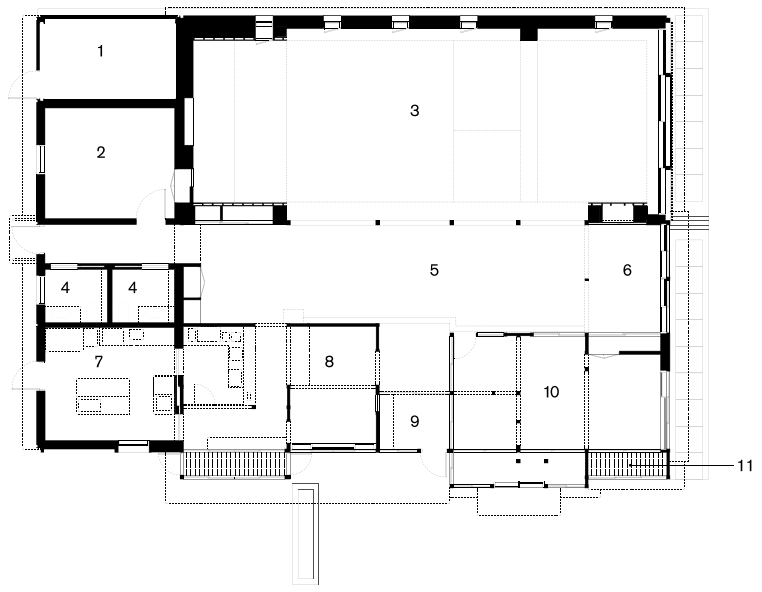
성경에서 유래되어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구인 '사랑의 수고(Labour of love)'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쏟아붓는 열정을 의미한다.

- 1 술 저장실
- 2 사입실
- 3 주모실
- 4 전실
- 5 종곡실
- 6 전실
- 7 작업장
- 8 방
- 9 창고
- 10 보일러실
- 11 부엌
- 12 마루
- 13 사무실
- 14 현관 홀
- 15 검사실
- 16 화장실
- 17 숙직실



리모델링 전 평면도

- 1 기계실, 실외기
- 2 창고
- 3 다목적 홀
- 4 화장실
- 5 로비, 전시공간
- 6 회의실
- 7 부엌
- 8 카페, 베이커리
- 9 주출입구
- 10 사무실
- 11 마루



리모델링 후 평면도



상 다목적 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목재 폴딩도어
 중 베이커리 카페로 활용되는 다목적 홀
 하 다목적 홀에서 열린 지역 청년들의 이벤트 무대 '달빛 탐사대'

산양양조장은 발주 주체인 문경시청과 건축가, 주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었다. 현재 지역의 청년기업이 '산양정행소'라는 이름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 지역의 비영리 청년협의체 '가치살자'와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로컬 문화를 실험하는 프로젝트 '달빛탐사대'의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산양양조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방문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버려진 주택이 게스트하우스로 변하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다.

산양양조장 리노베이션을 진행한 건축가로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들을 꼽아 본다면, 우선 '건축가의 역량에 대한 문경시의 신뢰와 전폭적인 믿음'이었다. 건축가가 제시한 리노베이션 전략을 받아들이고, 이후 실시단계 단계와 공사 단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건축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축가의 편에 서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양조장 리노베이션이 가능할 수 있었다. 문경시의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기획단, 문화예술과 등의 담당 실무자들이 보여주었던 협력과 믿음은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만하다.

더불어 건축가가 폐허로 남겨져 있던 숨은 보석 같은 산양양조장을 처음 발견하였을 때의 감동과 흥분을 다른 건축가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야망, 그리고 시골 마을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건축자산을 온전히 지역사회에 물려줘야 한다는 믿음으로 프로젝트는 완성도를 가질 수 있었다.

산양양조장은 문경 시민이 주인인 공공건축 자산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민들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공공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경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술을 생산하지 않지만, 지역 근대화의 역사를 가진 건축유산으로 지역사회의 연대, 청년 창업과 지역 문화 부흥을 상징하는 문경의 새로운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